



정교회 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성 칼리니코스 순교자

마태오 제9주일

성 칼리니코스, 성 테오도씨 순교자

제8조, 조과복음 9

성 요한 크리소스툼 성찬예배에서

- 제8조 부활 찬양송 / 82, A 218
- 주일 입당송 / 14, A 42
- 성인 찬양송
- 성당 찬양송
- 주 예수 그리스도 변모 축일 시기송 / 178, B 183
- 사도경 : 고린토 전 3, 9-17 / 봉독서 194
- 복음경 : 마태오 14, 22-34 / 112, B 44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성인들이 삶으로 전해 주는 구원의 말씀 성 칼리니코스 순교자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마태오 5:13~14) 그리고 “너희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라...”(마태오 5:16)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참된 믿음의 열매인 선한 행실과 거룩한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주고, 그렇게 하여 사람들의 삶을 부패에서 건져주어야 하는 사명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빛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하느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로 믿

음의 선한 행실을 하느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교회에서 7월 29일 축일로 기념하는 칼리니코스 성인(3세기)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성인의 삶과 같은 거룩한 삶과 선한 행실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찾아 보기가 힘듭니다. 서로 다투고 교리적인 가르침은 멀리하면서 말로는 믿는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겉으로는 종교 생활을 하는 듯이 보이지만 종교의 힘을 부인하고 말 것”(디모테 후 3:5)이라는 성서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최초로 유통된 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하네스 구텐베르크(1398년경~1468)에 의해 활자 기술이 발명된 후 1455년에 처음으로 인쇄 출판되어 세상을 휩쓴 책은 바로 『성서』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은 50억 부가 팔린 『성서』이며 두 번째는 9억 부의 『모택동 평전』 그리고 『꾸란』이 8억 부로 세 번째로 많이 팔린 책입니다.

2016년 한 해 총 4억 부의 『성서』가 판매되었는데 9백 만 부가 아프리카, 5천 5백 만 부가 아시아와 태평양 연안 국가에서 판매되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국민의 10명 중 9명이 무슬림인 방글라데시(인구 수 세계 8위)에서 2016년에 10만 5천 부의 『성서』가 판매되었고 쿠바에서도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 35만 부의 『성서』가 판매되었습니다. 현재 약 60억 명의 사람이 자신들의 언어로 된 『성서』를 볼 수 있습니다. 2016년에는 새로이 9천 5백 만 명이 사용할 수 있게 30개의 새로운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2016년 말까지 『성서』는 전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총 3,225개의 언어와 방언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에 물질주의 이념과 무신론으로 무장한 공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지속적인 기적이 아니라면 불가능했을, 이러한 『성서』의 경이적인 보급보다 더 기적 같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며 마음의 평화와 영혼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살아있는 하느님의 말씀인 『성서』를 우리말로 읽을 수 있음에 기뻐하며 감사드립니다.

†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대주교



우리는 왜 교회에 가서 예배해야 하나?

정교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모여 하느님께 예배하는데, 이는 성찬예배와 신비의 성사들을 통해 그분과 하나가 되고 또 그분의 백성들인 교회와 연합하기 위해서이다. 구원의 길을 계속 걸으며 ‘다가올 새로운 세계의 삶’을 고대할 때, 우리는 예배와 성사들을 통해 우리 자신을 대담하게 해 줄 힘을 얻는다.

예배할 때 우리는 ‘일체이시고 나누이지 아니하시는 삼위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한 마음으로 고백하기 위해’ 서로를 사랑하면서 하느님의 보좌(제단) 앞에 선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서도 특별히 성찬예배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일, 곧 사람이 되심과 지상에서 살아가신 것, 수난, 죽음, 무덤에 묻히심, 부활, 승천 등을 인정하며 참여한다.

교회의 전례와 예배는 근본적으로 하느님께 예배하기 위한 것이다. 정교회의 예배는 언제나 ‘하느님 중심적’이며, ‘인간 중심적’이 아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 대한 것이 예배이다. 예배는 우리가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며, 도리어 우리 자신에게 영감을 불어넣어서 각자가 고유한 방식으로 하느님의 나라를 미리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예배하며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느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크나큰 영예이다. 예배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그것에서 (무엇인가를) 얻어내느냐 못 얻어내느냐’는 것이 아니며, 도리어 그것은 전부 우리가 하느님께 (무엇인가를) ‘드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다.

▶ 아타나시아



소 식

대교구

■ 성모 안식 축일을 준비합니다

8월 15일 성모안식 축일을 맞이하여, 8월 1일부터 14일까지 엄격한 금식을 행합니다. 그리고 매일 오후에 『성모 소기원 의식』예배를 드립니다.

금식을 통해 영적, 육적으로 우리들의 욕구와 욕망을 절제하면서 축일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8월 6일 구세주 변모 축일에는 생선류만 허용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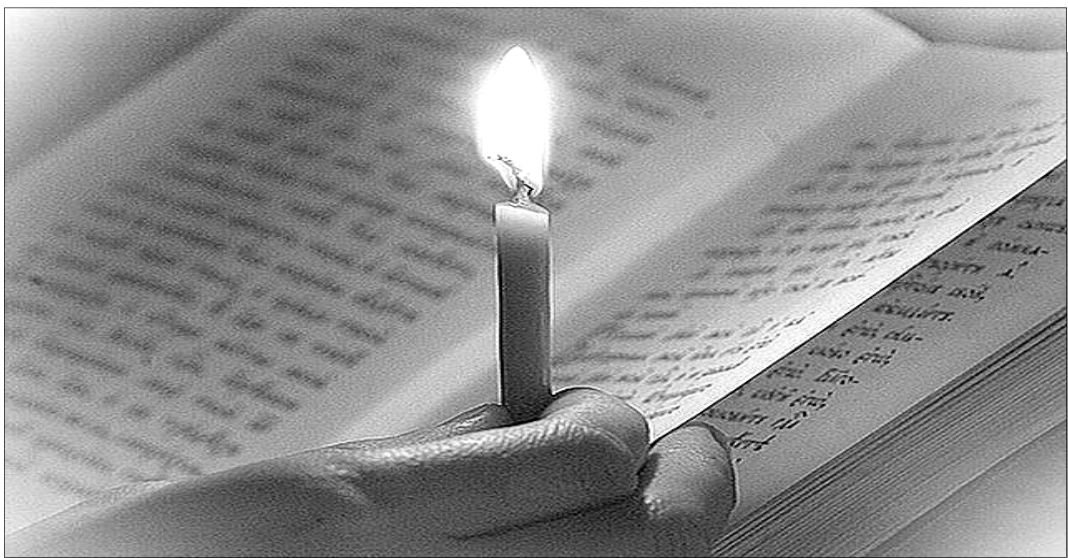
■ 여름 수련회 시작

7월 27일(금)부터 신데즈모스 수련회를 시작으로 여름 수련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느님의 도움으로 수련회가 아이들에게 영적으로 도움이 되고, 무사하게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느님께 기도드립니다.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 구세주 변모 축일 예배

8월 6일 월요일 구세주 변모 축일을 맞이하여 가평 구세주 변모 수도원에서 축일 예배가 거행됩니다. 예배에 참여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차편과 점심 식사 준비를 위해 사무실로 꼭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처 : 한국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 (02) 362-6371 / Fax (02) 365-2698 / www.orthodoxkorea.org